

건설소식

수의계약 평가기준 강화

조달청, 신인도 항목 8개로 늘려

[시] 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소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공사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중 일반사항 평가표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상업체에 대한 기술사항과 일반사항을 평가,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 가운데 90점 이상이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때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가운데 일반사항 평가기준 등을 조달청이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수의계약사유 평가에서 대상업체가 탈락한 사례가 없고 이번 개정도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먼저 경영상태 평가 때 과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준용했던 것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또 공사규모별 평가방법도 10억원 이상은 신용등급, 100억원 미만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이원화 했다.

과거 경영상태 평가 때 500억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평

가, 100억원 미만은 재무비율로 평가했다.

조달청은 또 신인도 평가 때 과거처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과 ‘기타 부실벌점 평가항목’ 등 2개 항목에 하도급관련사항 2개 항목, 건설재해 및 지재처분 4개 항목 등 6개 항목을 추가, 모두 8개 항목을 평가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경영상태를 공사 규모별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했으며 신인도 항목을 추가,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장터→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아파트 2만 가구 내놓는다

주공, 내달 발주...월간기준 최대

[광] 명역세권과 남양주 진접에 주공 아파트건설공사가 연내 착공된다.

대한주택공사가 내놓은 ‘9월 중 시설공사 집행계획’에 따르면 9월 중 광명역세권과 남양주 진접 등 전국 13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모두 2만 가구의 아파트건설공사를 발주한다.

이는 지난 7월중 최대 발주량인 1

만 6,000가구를 4,000가구 웃도는 것으로 주공사상 최대치다.

주공은 또 9월에 대구 옥포 등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모두 361만㎡에 이르는 대지조성공사를 입찰에 부쳤다.

이들 지구에는 모두 2만 6,000가구가 넘는 주택이 들어선다.

주공이 9월중 발주할 아파트건설공사 가운데 주목을 끄는 지구는 광명역세권과 남양주 진접.

이들 지구의 아파트건설공사는 주공의 첫 시공물량이다.

광명역세권은 모두 3,821가구, 남

양주 진접은 3,759가구가 들어선다.

주공은 또 대전 서남부에 3,335가구의 아파트건설공사를 내달 발주하는데 이어 △전주 효자 1,502가구 △천안 청수1,456가구 △양산 평산 1,385가구 등을 입찰공고 한다.

9월 주공의 발주 시설공사에서 시공사 선정방식이 독특한 지구는 성남 중동 재개발 3구역 아파트건설공사.

주공은 조합이 추천한 대우건설과 삼성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5개사를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주공은 또 대구 옥포와 대구 금호

등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를 발주키로 했다.

이들 지구에는 모두 2만 6,000가구(공동주택 포함)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구별로는 △대구 금호 7,380가구 △대구 옥포 5,872가구 △대전 노은3 5,424가구 △안양 관양 3,535가구 △제주 삼화 2,234가구 △홍성 남장 2,081가구 등이다.

한편 주공은 대구 옥포와 대전 노은3, 안양 관양 등 3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의 대지조성공사는 9월 발주가 넘어갈 공산도 있다고 밝혔다.

공종	지구명	가구수, 면적	비고
건축·토목·기계	남양주 진접	3,759가구	3개 공구 분할
	광명역세권	3,821가구	A1·2, B1·2블록
	양산 평산	1,385가구	
	대전 서남부	3,335가구	1, 10블록
	천안 청수	1,456가구	A1·2블록
	전주 효자	1,502가구	B1·2블록
	정읍 상동2	996가구	2개 공구 분할
	광주 진월	934가구	B2, C2 블록
	김해 진영	962가구	
	울산 매곡	720가구	
	문산 선유4	415가구	
	광주 지산	375가구	주거환경
	성남 중동	622	주거환경
	토목	대전 노은3	75만㎡
대구 옥포		99만㎡	택지개발사업
안양 관양		58만㎡	택지개발사업
제주 삼화		25만㎡	택지개발사업
대구 금호		94만㎡	택지개발사업
홍성 남장		26만㎡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하도급’ 민원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종합상담실이 처리한 전화·방문상담·인터넷신고 등 민원처리 건수는 모두 3만9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1,68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원회 소관 민원이 68%이고 소비자 피해구제, 민사분쟁 등 비소관 민원이 32%로 분석됐다.

위원회 소관 민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것이 7,528건으로 전체의 24.3%, 하도급 12.5%(3,880건), 약관 9.0%(2,790건)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이 많은 공정거래와 하도급에 관한 민원이 36.8%로 전체 민원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사례 SMS로 전파

노동부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단체 및 사업장 관계자에게 실시간 문자서비스(SMS) 등을 전파하는 ‘재해사례 전파시스템’을 시험운영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E-mail을 통해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재해사례 전파시스템으로 제공된 재해에 대해 분기별로 재해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정리해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알릴 계획이다.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개발

건교부 고령자 주거안전 위해 보급

노인들이 신체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택을 스스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건교부는 고령자들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개발,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7월~12월 까지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노인 가구용과 주택개조사업이 목적인 전문가용으로 나눠 제작된 이 매뉴얼은 전국 모든 시·군·구와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노인주거생활 안정과 자립성 유도를 위해 노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개보수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개조 기준은 지난 2005년 12월 38

개 항목으로 마련된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에 따라 노인주택을 무장애(barrier-free)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단차(턱)제거, 보조발판, 미끄럼방지시설,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 21개 기초기준과 함께 자립성을 고려한 문 잠금장치, 문손잡이, 인터폰, 침대, 입식용 소파, 양변기 설치 등 17개 유도기준이 제시됐다.

협력사 간담회 변화 ‘바람’

형식적으로 치러지던 협력사 간담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던 협력사 간담회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공중별 간담회는 원사업자와 협력사 간 대면식에 불과하던 기존 간담회와 달리 우수 협력사 대표를 공중별로 나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창배 롯데건설 사장이 협력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일반건설사들은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 연 1회 정도 형식적인 자리를 가져 왔지만 건설사 대표가 직접 나서 공중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통해 롯데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협력사들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소그룹별로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협력사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겠다”며 “구호로만 그치는 협력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호 이해와 제휴를 증진하고 공동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형식을 변경했다.

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팀장 및 현장소장들이 간담회에 대거 참석하고 있는 것.

협력사 대표들 사이에 한화건설 관계자들의 좌석을 적절히 배치해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한다는 복안이다.

한화건설은 이때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집중 검토한 뒤 우선 처리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 개선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 형식을 바꾸게 됐다”면서 “협력사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 바꾼다

주공, 휴게실·식당·화장실 획기적 개선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근로자 전용 휴게실이 설치되고 화장실도 환경친화형 포세식으로 바뀐다.

대한주택공사는 건설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키 위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장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는 휴게실과 화장실, 샤워·탈의실, 식당 등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공은 건설근로자 휴게실의 경우 아파트 1층이나 야외에 의무적으로 설치, 작업 외 시간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파트 층별로 간이 소변기를 설치키로 했다.

약취 등 비위생적이라고 지탄받던 현장 FRP화장실도 대폭 개선된다.

주공은 또 건설근로자의 복지관련 알짜정보 제공을 위해 현장에 식별용이한 LED전광판을 설치키로 했다.

전광판에는 안전관리, 노임지급, 퇴직공제금 등 유용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주공은 식당시설도 대폭 현대화시키는 등 식사위생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근로자용 주차장도 별도 설치키로 했다.

이 같은 현장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안을 성남 판교 현장에 시범 적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전국 모든 현장에 시행된다.

이를 위해 주공은 오는 12월 발주 건설 공사부터 이들 시설 공사비를 반영,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다. ●



주당 천국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러시아 국가통계위원회(State Statistics Committee)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수명은 59세가 채 안 된다(58세 11개월). 지난 2000년부터 수명이 15일이나 더

줄었다. 선진국 남성들의 평균수명(미국 73세, 독일·프랑스 74세)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과음이 원인!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